

21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77) 빈티지 가공으로 취화한 코트

□ 빈티지 가공으로 취화한 코트

해설)

- 클리닝 후 하프 코트의 소맷부리 근처 부분이 손상되었다. 소맷부리 시접 꺾은 부분에 따라서 나타난 손상을 블랙라이트로 조사로 관찰해보면 착용 마찰에 의한 선상의 손상부위를 볼 수 있음.



- 또 블랙 라이트 관찰에 의하면 착용중에 문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미노산(피지, 땀에 포함된다)의 형광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러한 형광 라인은 착용자의 피부가 직접 이 부분과 장기간 접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.
- 이 사례도 세탁 공정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, 착용 마찰에 의해 절단 되어 있던 섬유부스러기가 탈락되거나 또는 마모되어 가늘어진 실이 끊어져 손상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.
- 이 제품의 케어라벨에 부착된 천도 쉽게 찢어졌다. 그러므로 이 제품 전체의 강

도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, 케어라벨에 부착된 천이 회색으로 이염된 것으로 보아 이제품은 짙은 감색으로 가먼트 염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. 이 방법은 「황화 세탁」이라고 하는 빈티지 가공(낡은 옷 가공)의 일종으로 농색 황화염료로 염색한 후, 세탁과정에서 페이드아웃하여 오래 입은 듯한 효과를 준 제품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제품의 경우 황화염료로 염색후, 처리가 부적절하면, 섬유 내 잔류 유허성분이 습한 공기에 산화되어 황산이 발생하고 이러한 산이 셀룰로스계인 면, 레이온 등을 취화시켜 마찰이나 인열강도의 저하 원인이 되고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